

지역 매 아리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요구

제30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용님 의원이 평교 소재지 회전교차로와 용계 삼거리에 농어촌버스 승강장의 설치 필요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며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관에는 아직도 버스승강장이 없어 교통약자인 학생, 노약자 등이 눈비를 맞아가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어 현안문제로 이러한 지역에 농어촌버스 승강장과 아울러 평교피 삼거리 회전교차로 시설도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로변에 승강장 적정 부지가 없어서 설치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지를 직접 매입해서라도 하루 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승강장 설치 문제와 같이 앞으로도 부안군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계속 소통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쳐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26일 제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고창군의회는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한 심원면 열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한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인 613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55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366억원,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3% 증가했으며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미세먼지, 폭염 등 군민의 안전과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과담당근소벌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촌마을공동체에 활력을"

고창군, 전북도 최초 농민수당 9월 지급

고창군이 전북도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에게 하반기 29억원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끝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을 전라북도 최초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2017년 1월 1일 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2019년 4월 30일까지 등록된 농업인인 지원대상이다. 부부이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마을공동체 보존을 위한

지원이므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논밭제초제 사용줄이기, 마을공동체 활동인 환경정화운동 등 고창군 농업·농촌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족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으며, 실거주, 실경작, 세대분리 신청부부, 농의소득, 농업경영체등록 등 검증 과정을 거

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올해 9월 초 추석이전에 고창사랑 상품권을 대상자 주소지 해당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개량,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화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국가 예산 확보 '총력'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정읍시의 거침없는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진섭 시장 등 시 방문단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방문해 국비 확보 활동을 벌였다.

기재부 방문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딱거리 창출에 필요한 6개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 시장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을 시작으로 지역예산과장과 안전예산과장 등과 면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며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경제예산심의관과의 자리에서는 전기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

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전기화재 연구시설이 점무한 전기화재 종합분석 센터 구축의 절실함을 어필했다. 이어 미래주도형 농축산물 유통 마켓을 활용개발과 연구지원을 위한 복합마케팅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건의했다.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계된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구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태인축곡장 조성사업을 지역예산과장에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안전예산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전북도 10만여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민방위 실전 체험 훈련장의 건립을 위한 국가에

산반영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국가예산 반영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직접 연계되는 만큼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해 뛰었다"며 "여세를 몰아 국회 단계(8~11월)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 실과소의 중앙부처 일제 출장, 중앙부처 항공공무원(서래봉회)과 2차례 간담회, 정읍시 미래전략(중앙·지역)자문단과 정책 간담회 등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가 한창인 지난 7월 초 전 국·소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일제 출장해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 지황 재배관리 요령 지도 나서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잠마철과 혹서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황 재배 농가에 집중적인 포장관리를 당부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지황은 뿌리의 겹질이 아주 얇아 잠마철 토양 속의 수분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호흡 장애가 발생하므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음병과 점무늬병 등의 병해충 발생을 줄여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

약제 방제는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예방 위주로 하고 침수와 습해 피해를 입은 포장은 배수구를 정비하여 신속하게 물을 빼주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고온기에도 포장상태를 꼼꼼하게 잘 살펴 적정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꽃대 제거와 해충 방제에도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지황은 생화탕의 주재료로서 한약 방에서 감초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약재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이 지난 25일 퀴즈한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부안군, 미국 뉴욕 퀴즈한인회 우호협력 교류 농수특산물 수출 등 상호 협력방안 적극 모색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총 18명 규모의 방문단이 부안 농수특산물 수출 등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퀴즈한인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부안군과 미국 뉴저지주의 대표적 한인인턴인 리지필드가 부안 농수특산물 수출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한 후 그와 연계해 이뤄졌다.

방문단은 지난 25일 퀴즈한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과 부안 농수특산물 수출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방문단은 방문기간 동안 시장과 마켓 등을 돌아보며 부안 농수특산물 수출에 대한 시장조사도 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퀴즈한인회와 보이스카우트연맹을 방문해 미국 스카우트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 캠퍼리 홍보도

할 계획이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25일 뉴욕의 저명한 KBN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권익현 군수는 인터뷰에서 퀴즈한인회와 부안 농수특산물 수출 등 우호협력 교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부안의 풍부한 먹거리와 내소사, 채석강 등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소개했으며 관광산업, 축재, 특산물 등 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홍보했다. 또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 캠퍼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부안군과 퀴즈한인회가 농수특산물 수출은 물론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함으로써 부안을 세계에 알리고 부안군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일환으로 장애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15개 읍면 보건지소·진료소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대상자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거동불능과 거동불편 등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으로서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장애인 세대다.

보건소는 연 4회에 걸쳐 작업치료사와 지역담당자가 신청 장애인 세대를 방문하여 목창 상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지도 등의 재활 관리

운동을 돕고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작업 치료 도구를 이용한 손악력과 굳어있는 미세 근육을 풀어주는 혈액순환을 돕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초고령화와 독거·장애인 세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정방문 재활서비스의 제공횟수를 늘려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촉진시키고 자립능력을 증진 시키고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건강재활과(☎539-607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94-9960
www.gangsanwine.com